



중국 양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해랑 연구원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음.

- 양회는 국회와 유사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3일 개최되어 2014년 3월 1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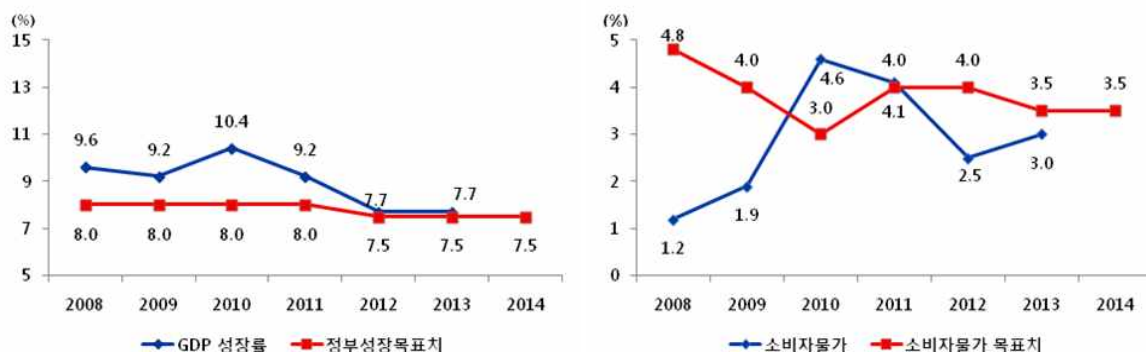
■ 전인대 개막 직후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¹⁾에서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중국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관련 지표들의 예상 목표치를 발표함.

-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5%,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 3.5%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리커창 총리의 ‘거시경제 상하한 관리²⁾’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적절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어할 것을 시사함.
- 중국정부가 ‘바오바(保八: 경제성장률 8% 달성)’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성장 목표치를 7.5%로 낮춘 것은 2012년부터 연속 3년째임.

1) 정부공작보고는 매년 전인대 개막 직후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보고로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중점업무에 대한 브리핑으로 구성되며,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전인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을 위한 정부업무보고를 함.

2) 2013년 리커창 총리가 ‘거시경제 관리의 최저 한계선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고, 최고 한계선은 물가상승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데서 유래된 용어임. 현재 그 범위는 GDP 성장 목표치가 최하 7.5%,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고 3.5%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그림 1〉 중국 GDP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실제 추이와 전년대 목표치



자료: IMF, 정부공작보고서(2008~2014).

■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5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 유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 부문의 부채규모는 심각한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조달 경로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³⁾의 자금 조달 기능을 철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밝힘.
- 올해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리커창 총리는 금융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금리자유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및 위안화 자유태환, 예금보호제도 도입 등을 발표함.

- 리커창 총리는 현재 $\pm 1\%$ 인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여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가치 급등락 예방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임.
- 예금보호제도는 금리자유화 실현 시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와 금융권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제도로 금융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됨.

3)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이라고도 하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도시개발 회사 등)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임.

- 그 밖에도 민영은행 설립, 주식발행 등록제, 채권시장 발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식발행등록제는 주식 발행에 대한 심사 방식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주식발행과 관련한 시장과 투자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임.

- 중국정부가 발표한 경제관련 주요 목표치가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FT, WSJ, 연합뉴스 등)